

열악한 의료·교육 인프라에...섬 떠나는 주민들

3년간 전남 섬 인구 1만 1000여명 줄어...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원인
관광객 유치 정책 치중에 거주민 소외...“병원 때문이라도 육지로 가야”

섬의 날에 들어 본 섬 주민 고충

“전북 값도 반토막나고 관광객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 20%밖에 안 오는데 주민들이 섬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김광근(57) 완도군 노화도 이장단장은 갈수록 섬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완도군 노화도는 과거 2만명 넘는 인구가 거주해 인근 섬들의 중심지 역할을 해 ‘작은 목포’라는 별칭까지 갖고 있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인구가 빠져나기면서 올해 인구는 4000여명대로 줄었다.

수입원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니 유입되는 인구는 없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인구만 늘고 있는 것이다.

김 이장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인프라 등 투자를 요청해도 섬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에 있어 개발제한이 돼 있다고 한다”며 “관광지라고 해 봐야 보길도 유적지뿐이고, 먹거리도 특별한 것이 없는데 거주민을 위한 인프라도 못 만든다니, 누가 섬에 와서 살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최근 3년여만에 전남지역 섬에서 1만 1000여명의 인구가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섬 내 인프라 부족이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꼽히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남에는 총 2765개의 섬이 있으며, 이 가운데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는 272개다. 전남지역 섬 인구는 지난 2019년 17만 3794명에 달했으나 ▲2020년 16만 5415명 ▲2021년 16만 5995명 ▲2022년 16만 2932명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 등이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섬의 날’ (8월 8일)을 지정하고 전남도 등에서 연륙·연도교 설치,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음에도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남도가 관광객 유치 정책에 치중해 나머지 오히려 섬 거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도외시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섬 내 병원·의원 등 의료시설과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노인·어린이·장애인 복지

시설 등이 부족하다 보니 연륙·연도교를 신설해왔지만 인구 유출만 가속한다는 것이다.

당장 완도에서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노화의 경우 섬 내에 의료시설이라고는 개인병원 두 곳 뿐인데, 주말에는 의사들이 육지로 가버려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섬 주민들의 불만이다.

결국 나이를 먹으면 병원 때문이라도 섬을 떠나 육지로 가야하는 셈이다. 한국섬진흥원이 지난해 발간한 ‘섬 인구감소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 또한 ‘기초 인프라 부족’을 섬 인구 감소의 첫 원인으로 꼽았다. 기초 인프라 시설 대부분이 인구 2만명 이상 대규모 섬에 편중돼 있어 작은 섬 주민들은 섬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유인도 중 의료시설이 없는 섬은 전체 유인도의 62.3%, 보육·교육시설이 없는 섬은 76.3%, 복지시설이 없는 섬은 43.3%에 달했다. 이 중 전남 유인도 272곳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전남도 유인도 정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남 유인도 중 246곳(90.4%)에는 병원·의원·한의원이 없었다. 또 노인·어린이·장애인 복지시설을 갖추지 못한 섬도 249곳(91.5%)에 달했다.

교육 환경도 열악했다. 유치원이 없는 섬은 224곳(82.3%), 초등학교가 없는 섬은 193곳(70.9%), 중학교가 없는 섬은 232곳(85.2%), 고등학교가 없는 섬은 256곳(94.12%)이었다. 이렇다보니 교육 차원에서라도 젊은 인구들이 꾸준히 섬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원산(67) 영광군 송이도 이장은 “섬의 여건이 열악하다보니 새 사람이 올 이유도 없고, 있던 사람들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며 “정부·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섬 인프라 지원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다만, 섬의 특성상 ‘종합 대책’으로는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구 수 1000명을 넘는 섬과 10명 미만인 ‘작은 섬’ 등 다양한 규모의 섬이 있는 만큼 모든 섬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섬의 여건에 맞는 개별적인 섬 발전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김원희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팀장은 “병원, 학교 등 최소한의 인프라를 모든 섬에 갖춰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제는 개별적인 섬별 발전계획이 수립돼야 인구 유출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또한 지금처럼 부처별, 지자체별로 섬 관리 주체를 나눌 것이 아니라 모든 섬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원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2주째 폭염특보가 내린 7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자 시민들이 종이로 머리를 가리며 비를 피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태풍 ‘카눈’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 상륙

전국 영향권 강풍 동반 강한 비
중대본 위기 경보 ‘경계’로 상향

제6호 태풍 ‘카눈’이 경로를 변경, 10일 오전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광주·전남은 9일 오후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태풍의 경로가 서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9일 오후 전남 남해안 먼 지역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고 7일 예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7일 오후 6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를 가동한다.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된다. 행안부는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 전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실시됨에 따라 중대본 1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2단계를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위기 경보 수준 또한 ‘관심’에서 ‘주의’를 거쳐 ‘경계’로 격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주의’ 단계를 건너뛰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동진 중이며 중심기압 970hPa, 최대풍속 35m/s, 강풍반경 350km에 이르는 강한 태풍이다.

10일 오전 중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륙 시 태풍의 강도를 ‘강’ (중심최대 풍속 초속 33~44m)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전남은 태풍 중심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9일 밤부터 태풍특보가 내려지고 전남 동부에 초속 20~30m 강풍이 불고 강한 비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태풍의 영향권이 들기 전인 8일까지는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6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 태풍 ‘카눈’에 대비해 협업 부서, 자치구와 함께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분야별 대책 등을 점검했다.

광주시는 특히 9일 오후부터 풍속이 초속 15m

폭염 주의하세요



광주·전남 37°C

이상인 강풍 반경에 들 것으로 예상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통해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다가오는 태풍에 철저히 대비해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본사 인사

▲장필수 : 논설실장

▲윤영기 :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8월 8일자〉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THE NEW GENERATION
윤조에센스 6세대



Sulwhasoo